

문화

[茶 한잔] 대구·경북 중심 활동 김완, 손파 작가

문화일반

김수영기자 2016-10-12 [기자가 쓴기사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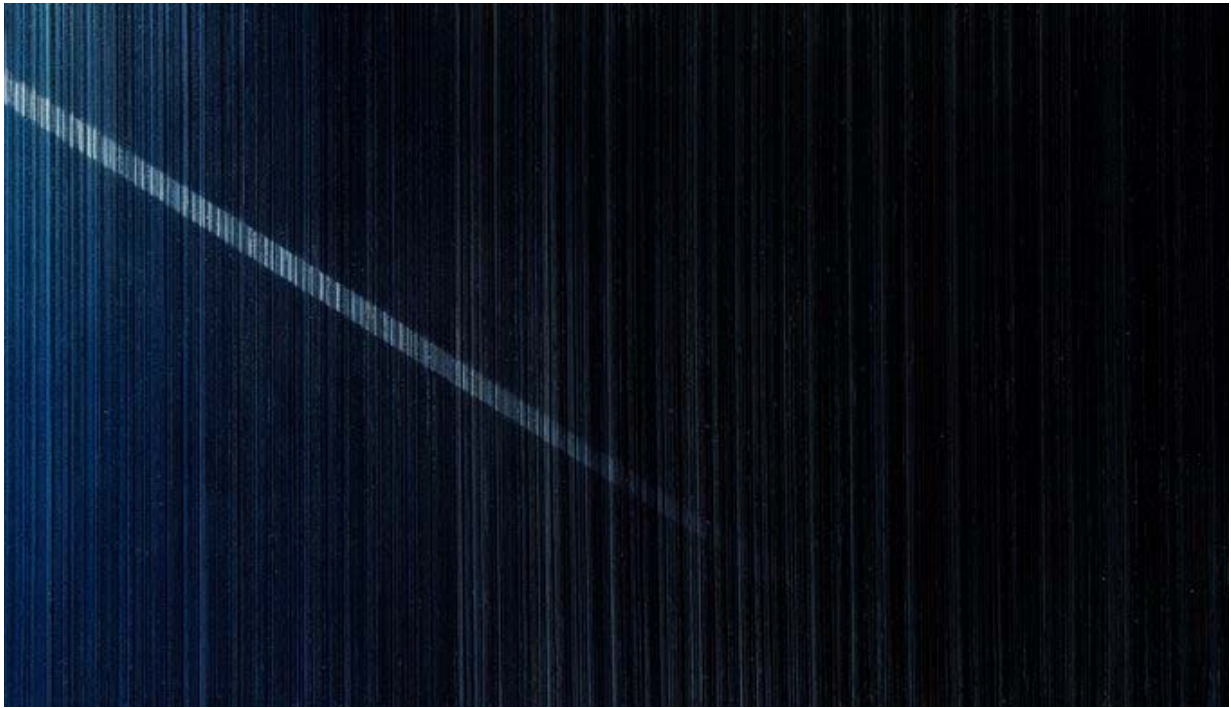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초청된 것 자체가 영광”

金 “전시장 벽면 캔버스로 활용할 것”

孫 인간 고통과 치유 금속으로 표현



‘2017 베니스비엔날레’에 초대받은 김완 작가(왼쪽)와 손파 작가.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김완 작 'lightscape'



손파 작 '무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최근 해외아트페어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지역 출신 작가 김완과 손파가 내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초대받았다.

‘2017 베니스비엔날레’를 위해 마련한 네덜란드 비영리재단인 글로벌아트어페어재단과 유러피안컬처센터의 주최로 내년 5월13일부터 11월26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팔라조 모라에서 열리는 ‘개인적인 구축- 시간, 공간, 존재’라는 기획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번 기획전은 2017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와는 별도로 마련되는 특별전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받는 작가들을 선정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령대를 가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시간, 공간, 존재를 성찰하고자 시도한 전시이다. 이 전시에 한국작가로는 2009년 김아타, 2011년 이우환·세오, 2015년 남홍·차수진·한호·이명일·이이남·박기웅이 참여했다.

김완 작가는 “이런 세계적인 전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한국 작가를 대표해 참여하는 만큼 좋은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영남대와 동대학원(동양화 전공)을 졸업한 김 작가는 한국의 신세계갤러리 본점, 중국 선샤인 국제미술관과 베이징 상상국제미술관 등에서의 기획전에 참여했고 미국 뉴욕 첼시에 이블파인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등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close X

‘빛을 그리는 작가’로 불리는 그는 단색의 화면에 빛과 공간을 그려넣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빛과 공간의 찰나적인 상호작용의 순간을 담아냄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禪)적인 고요함과 긴장감을 느끼도록 한다. 그의 작품은 평면성의 나약한 선을 극복한 강하고 입체적인 선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미니멀회화의 평면성을 극복하면서도 그 정신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주로 평면작업을 해왔던 김 작가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한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보여줄 계획이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작품들이 될 것”이라며 “액자라는 틀을 깨고 전시장 벽면 전체를 캔버스로 이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 정형적이지 않은 작품을 보여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보기 위해 베니스까지 다녀온 그는 “전시장인 궁전의 예스러움을 잘 살리면서 그 공간에 딱 맞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대 미술학과와 계명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한 손파 작가는 구상과 비구상은 물론 추상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작업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재료에 대한 호기심에서 입체형식의 작품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의 불안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했으며 피부와 흡사한 질감의 고무를 자체 제작하고 실리콘 작업도 병행했다. 불안과 고통을 표현함과 동시에 치유를 고민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동양 전통의 의술 재료인 침에 관심을 갖게 됐고 수십, 수백만 개의 한방침으로 덩어리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 역사의 흔적인 유물들의 형상(책, 갑옷, 투구, 향아리 등)을 표현하고 인간 고통과 치유의 반복적인 역사 흐름을 차가운 금속 질감으로 드러낸다.

손 작가는 “한방침을 활용한 작업은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려는 의미도 있다”며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전시할 공간을 봤는데 그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을 들고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특별전에 초대작가로 선정된 것에 “오랜 시간 무명작가로 있으면서 흔들림 없이 작업해왔던 것이 이번에 제대로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 세계적인 대가들과 함께 전시한다는 점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강한 책임감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

대구·경북 最古의 역사, 영남일보와 함께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독신청 ▶